

白雲 李奎報 연구의 回顧와 課題*

— 철학사상 연구의 측면에서 —

최영성**

|| 차례 ||

1. 머리말
2. 이규보의 철학사상 概觀
3. 이규보 철학사상의 研究史的 검토
4. 미래적 전망과 課題
5. 맺음말

【국문초록】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규보 연구는 문학·역사학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축적하였다. 53권에 달하는 그의 문집이 온전하게 전하고, 게다가 한글로 번역까지 이루어진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철학사상 측면에서의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진척이 더디다. 연구 수준 또한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문제점으로는 '문제의식의 결핍'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규보의 위상이 아직까지 '문장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철학 전공자들의 관심과 분발, 반성이 요구된다. 이규보 철학사상은 유교·불교·도교의 삼교에 대한 이해와 민족주체의식,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인간주체'의 문제,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그 본령에 접근할 수 있

* 본고는 2004년 8월 14일,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강화 역사문화 연구소가 '이규보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傳燈寺 講說堂 세미나실)에서 발표한 것임을 밝혀둔다.

** 국립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 관리학과 교수(한국철학)

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 三敎交涉史에 굽직한 발자취를 남긴 학자·사상가들과의 비교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이들 사이의 학문적·사상적 연결 고리를 밝힘으로써 한국사상사의 맥락을 역동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문제의식, 三敎觀, 민족주체성, 인간주체, 비교연구

1. 머리말

우리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白雲居士 李奎報(1168~1241)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960년대에 들어 선을 보이기 시작했고,¹⁾ 이후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갔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여타 인물들에 비해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척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정치적·학문적 위치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53권에 달하는 거질의 『東國李相國集』이 온전히 전하고, 또 1979년부터 3년에 걸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완역해 냈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이규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학술사를 위하여 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 업적이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이규보에 대한

1)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규보 연구의 초기 논문으로는 鄭在洪, 「이규보의 假傳體文學考」(『국어국문학 연구논문집』 제8집, 효성여대, 1959), 張德順, 「민족서사시 ‘동명왕편」(『인문과학』 제5집, 연세대학교, 1960), 李佑成, 「고려 중기의 민족서사시」(『성균관대학교 논문집』 제7집, 1962), 장덕순, 「이규보-붓의 정치가」(『韓國의 人間像』 제5권, 신구문화사, 1965), 朴菴熙, 「李奎報의 就官と 折節」(『新韓學報』 통권 제14호, 東京 新韓學術研究會, 1967), 박창희, 「이규보의 ‘동명왕편」시」(『역사교육』 제11·12합집, 1969), 박창희, 「李奎報의 東明王篇詩」(大谷森繁譯, 『朝鮮研究年報』, 조선연구회, 1970) 등의 순으로 꼽을 수 있다.

연구 논저를 綜覽하면 枚擧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런데, 연구 경향이 라든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와 함께 「東明王篇」 등에 보이는 민족의식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 여러 편 보고되었고, 또 「동명왕편」을 역사학적 측면에서 다룬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근자에는 儒敎史家로서의 이규보의 역사학을 탐구한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²⁾ 불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그의 불교관이 검토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문학·역사학·철학 등 각 방면에서 균형 있게 연구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學際間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아직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할 것 같다. 이규보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가 펴 드문 것도 예상 밖의 일이다.³⁾ 이규보의 盛名에 비추어 의외이다. 이것은 이규보 전공자가 겉보기와는 달리 많지 않은 현실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이규보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한 마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성싶다. 그 기초라 할 수 있는 三敎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역사학 전공자에 의해 이룩된 성과들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규보 철학사상의 내용과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 고찰한 논저는 아직 期待難이요, 다른 사상가와의 비교 연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규보 철학사상의 梗概를 살펴본 뒤 이어 지금까지 철

2) 대표적인 것으로 朴宗基, 「儒敎史家 이규보의 역사학」, 『韓國史學史研究-于松趙東杰停年紀念』, 도서출판 나남, 1997, 143~160쪽 참조.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이규보를 다룬 논고로는 韓相璉의 「한국의 歷史哲學-史家와 그 理論」, 『아세아연구』 8권 2호, 고려대학교, 1965 참조.

3) 석사학위의 경우, 낱낱이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박사학위의 경우, 대부분 '고려 무신정권 시기 문인지식층'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 여러 문인들과 함께 다루어졌고, 독립적으로 다룬 것은 朴堧熙 교수가 1976년 일본 一橋大學에 제출한 『李奎報研究』가 최초인 듯하다.

학사상 측면에서 접근한 이규보 연구의 성과를 되돌아보려고 한다.⁴⁾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본 뒤, 앞으로의 연구방향,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학·역사학 등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있는 만큼 그에 미루고, 필요한 경우에만 논급하기로 하겠다. 또 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만 다루고 석사학위논문은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2. 이규보의 철학사상 概觀

이규보는 명실공히 고려 중기의 文豪요 詩豪였다. 그의 학문 본령은 유학에 있었으나, 결코 교조적인 학자는 아니었다. 유학 이외에도 불교와 도교에 남다른 소양을 지녔으며, 제자백가 역시 通曉하였다. 특히 불교의 경우 일찍부터 접하고 평생토록 佛門에 출입하였는데, 만년에는 종교적으로도 심취했던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자였기 때문에 불교의 전 사상을 섭렵한 것은 아니었고, 대체로 유학사상과 조화·융합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은 도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에게 있어 유교는 經世的 측면에서, 불교는 심성수양의 측면에서, 도교는 救世的 측면에서 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이면에는 三教一源說이 크게 작용하였던 듯하다. 그는 일찍이 朴還古에게 보낸 시에서

4) 정치사상·사회사상 등의 측면에서 고찰한 논고에 대해서는 그 제목만 적어 둔다. 金皓東, 「고려 무신정권시대 문인지식인 이규보의 농촌현실관」, 『국사관논총』 제4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2 ; 金仁昊, 「이규보의 현실인식과 정치·경제 개선론」, 『學林』 제15집, 연세대학교, 1993 ; 황병성, 「이규보의 君臣·君子觀의 성격」, 『전남사학』 제19집, 전남사학회, 2002 ; 김호동, 「桂陽都護府使 李奎報의 활동을 통해본 고려 郡縣統治의 실상」, 『한국중세사연구』 제14집, 한국중세사학회, 2003.

師傳甘蔗氏 사(師)께서는 불성(佛姓)⁵⁾을 전하고
 我繼仙李君 나는 노자를 계승하였다.
 釋老本一鴻 노·불은 본래 하나의 기러기.
 鳧乙何須分 오리·제비로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⁶⁾

라고 하였으며, 또 72세 되던 어느 날 한 高官이 방문하여 불경을 독송하는 자신을 힐난하자 “유교와 불교는/ 이치의 極은 같은 一源이라/ 무엇이 雜駁하고 무엇이 純一할까/ 괴이하도다, 그대의 논한 바여”⁷⁾라고 응수하였다. 윗시의 논지는 道佛一源이요, 아래의 것은 儒佛一源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弘明集』, 『廣弘明集』 등에 많이 보이는 삼교일원설과 가깝게는 북송 蘇軾의 삼교조화론 등에서 연원한다고 할 수 있다. 오리와 제비의 비유는 중국 남북조시대 南齊 사람인 張融의 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⁸⁾ 그러나, 이러한 삼교조화 내지 삼교일원 사상은 내면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신라 말의 명유 孤雲 崔致遠(857~?)의 입장과 서로 합치됨이 특징이라 하겠다.⁹⁾

이규보의 유학사상은 九經 및 『논어』, 『효경』, 『맹자』 등에 근원하고 있다. 이들 경전은 대개 舊注인 『五經正義』에 바탕을 둔 것들이다. 그 가운데 『주역』과 『춘추』를 통해 각각 신비성과 민족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는 『주역』에 대하여, 『주역』은 神明의 책으로 오경 중에서 至神함이 伏羲易과 같은 것이 없으며, 천지의 도를 밝힌 경전 가운데 가장

5) 佛姓을 이룸. 석가모니의 조상 가운데 甘蔗王(감자왕)이란 분이 있었으므로 후세에 佛姓을 甘蔗로 하였다 한다.

6) 『동국이상국전집』 권8, 13a 「明日朴還古有詩走筆和之」.

7) 『동국이상국전집』 後集 권6, 5b 「南軒答客」 “…… 況復儒與釋, 理極同一源, 誰駁又誰純, 咄哉渠所論”

8) 『弘明集』, 張融撰 「門律」; 『大正新修大藏經』 史傳部 四, 38쪽 참조.

9) 魯平奎, 「이규보의 古神道思想과 三教融和」, 『東方哲學思想研究』(道原 柳承國 博士 高희기념 논문집), 1992 참조.

신비한 것이 『주역』이라고 하였다.¹⁰⁾ 이와 같은 이해는 「동명왕편」에 보이는 ‘乃聖乃神’의 초월적 신비성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동명왕편」에서 우리 나라는 신비하고 異蹟이 있는 나라로서 그 창업이 神妙하여 ‘聖人之都’라 하였다. 그가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 유교사상의 합리성과 윤리성·실천성에 대하여 일정하게 懷疑를 표시하고,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신비적 요소를 지닌 고유사상이 전해오고 있다는 점을 은연중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玄妙之道로서의 풍류도의 실체를 해석하고 정의를 내렸던 최치원의 사상적 입장과 통하는 바라 할 것이다.

이규보는 春秋精神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外國(고구려를 지칭)이 중국에 朝貢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태종이 장차 萬國을 臣服시켜 문자와 수레를 통일시키고자 우리 고려를 침범하여 짓밟았다. …… 외국이 조공하지 않음은 당연한 이치이거늘, 文皇帝(唐太宗)가 도리어 분연히 화를 내고는 군사들을 遠征에 내보내어 고달프게 하였으며, 끝내는 몸소 진두에 서서 經略하였다.¹¹⁾

국가와 국가 사이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는 점을 논한 것으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한 것은 부질없는 야욕이요 불법적 침략일 뿐이라는 점을 은근히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춘추』의 근본 정신을 주체성의 차원에서 이해한 것은 『춘추』의 ‘大一統思想’을 華夷觀에 따라 이해하였던 조선시대 유자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¹²⁾ 최치원의 민족주체 의식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법하다.

10) 『동국이상국전집』 後集 권12, 「秦始皇不焚周易論」 참조.

11) 『동국이상국전집』 권38, 10b 「祭蘇挺(定)方將軍文」 “夫外國之不賓中國久矣. 太宗將臣伏(服)萬國, 混一文軌, 使將軍統師侵軼我高麗, …… 且外國不賓常理也, 文皇帝猶憤然怒作, 使勞師遠役, 迺至自將而經略”

12) 이것은 그가 ‘小中華’ 의식에서 완전히 탈피했느냐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이규보는 또 “고금에 어진 인재 끊임없이 태어나 중국에 견주어도 크게 부끄러울 것이 없네. 인재 있으면 나라요 없으면 나라가 아니라, 오랑캐는 땅덩어리만 컸지 도리어 草芥 같을 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중화인들이 우리를 일러 小中華라 했던 것을. 이 말은 진실로 채택할 만하네”¹³⁾라고 하였다. 한 나라를 평가함에 국토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요, 훌륭한 인재가 얼마나 배출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규보의 강렬한 민족의식은 우리 나라 敍事詩 가운데 雄篇으로 꼽히는 「동명왕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일찍이 26세 때(1193) 『舊三國史』를 읽고 느낀 바 있어 「동명왕편」을 지었는데, 그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영웅적인 행적을 감격스럽게 노래한, 이 장편 서사시를 짓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명왕의 事迹은 幻이 아니요 聖이며, 鬼가 아니요 神이었다. …… 變化神異한 것으로써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일이 아니요, 실로 創國하신 신성한 자취이니, 여기에 기술하지 않으면 후일에 장차 어찌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시를 지어 이를 기록하고 저 천하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가 본래 성인께서 계신 곳(聖人之都)임을 알도록 할 따름이다.¹⁴⁾

이처럼 그는 몽고의 箝制 아래 신음하던 민족의 수난기에 「동명왕편」을 지어 우리 나라가 聖神의 나라였음을 강조하였다. 당시 학자·지식인 대다수가 親蒙的 사대주의에 빠져 있을 때, 이처럼 민족 주체의식을 한껏 드높였던 것은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없다’(道不遠人 人無異國)고 외쳤던 최치원의 東人意識과 일맥 상통하는 바

13) 『동국이상국전집』 권17, 12b 「題華夷圖長短句」 “萬國森羅數幅牋，三韓隈若一微塊。觀者莫小之，我眼謂差大。古今才賢袞袞生，較之中夏毋多愧。有人曰國無則非，胡戎雖大猶如芥。君不見華人謂我小中華，此語真堪採”

14) 『동국이상국전집』 권3, 1b~2a 「東明王篇 序」

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규보의 문집 이름에 '東國' 두 글자를 표출시킨 것은尋常하게 보아 넘길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규보는 유·불·도 삼교에 정통한 학자로서, 최치원 이후 거의 첫손에 꼽힐 만한 通儒였다. 그의 호 '白雲'은 '孤雲'과의 사상적 연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일찍이 최치원을 평하는 글을 지어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한 뒤 『唐書』 「文藝列傳」에 최치원의 傳을 넣지 않은 것은 그의 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민족적 자부심과 연결시키려 하였다.

『당서』 「藝文志」를 살펴건대, 최치원의 『四六文』 1권과 『桂苑筆耕』 20권이 실렸다. 自注에 이르기를, "(최치원은) 高麗 사람인데 賓貢及第로 高駘의 淮南從事가 되었다"고 했다. 내가 이것을 읽어보고, 과연 중국인은 胸懷가 넓다고 칭찬하였었다. 그 이유는 곧 외국인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미 문집을 발간하여 세상에 유행하도록 하였고, 또 史書에 이러한 사실을 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예열전」에 최치원의 '전'을 넣지 않은 것은 그 의도를 모르겠다. …… 외국인이라고 해서 '전'에 넣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예문지」에 이미 최치원의 이름이 나타나 있고, 또 藩鎮의 虎勇으로 말하더라도 李正己·黑齒常之의 무리가 다 고려 사람이거늘, 어찌 「문예열전」에서만 최치원의 열전을 쓰지 않았단 말인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옛날 사람들은 문장 때문에 서로 시기가 있었는데, 더구나 최치원이 외국 사람으로 중국에 들어가 당시의 명인들을 짓밟았으니, 이런 것이 중국 사람들의 꺼리는 바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¹⁵⁾

이규보는 최치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仁範笙篔雅 박인범이 부는 생황 소리 우아하였고
弘儒黼黻披 홍유후(설총)는 문채 있는 옷을 걸쳤다네.
……
孤雲金馬客 고운 금마객은

15) 『동국이상국전집』 권22, 7a~8a 「唐書不立崔致遠列傳議」 참조.

東海玉林枝 해동의 옥림 가지였다네.
 射策鳴中國 화살로 금방(金榜)을 쏘아 중국을 울렸으니
 馳聲振四陲 치달는 명성 사해에 진동하였네.
 高芬繁盼蠻 높은 향기 멀리 울려 퍼지고
 遺韻遠委蛇 남은 운치 멀리 굽이굽이 전해지네.¹⁶⁾

여기서 ‘高芬’이니 ‘遺韻’이니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최치원의 문학과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규보가 자신의 저술을 통해 우리 고유사상을 강조하고, 또 고유사상을 통해 삼교융화를 도모하였던 사실은 그가 최치원의 사상적 統緒를 잘 계승한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¹⁷⁾

3. 이규보 철학사상의 研究史的 검토

이규보는 유·불·도 삼교를 겸한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사상가이다. 그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로 ‘문장의 대가’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의 철학사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 밖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⁸⁾ 이에 비해 북한의 『조선철학사』에서는 고려 전 시기를 통해 관념론을 배격하고 唯物論的 철학사상을 고취한 대표적인 학자로 이규보를 들었고, 이러한 사상적 경향을 진보적인 것으로 높이 평가하여 왔다.¹⁹⁾ 또 이규보를 氣論者라 지목하기에 합당한 글로 「問造物」 등 중요한 단서 다수를 들기도

16) 『동국이상국전집』 권5, 6a~6b 「次韻吳東閣世文呈誥院諸學士三百韻詩」

17) 자세한 것은 노평규, 「이규보 철학사상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21~133쪽 참조.

18) 물론 그 사이 崔利子の 「이규보 사상에 대한 일고찰」(전주대학교 교육학부 『논문집』 창간호, 1983, 5~28쪽)이 발표되는 등, 사상적 측면에서의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 정성철(외)의 『조선철학사』 상권(1962)으로부터 최봉익의 『조선철학사개요』(1986)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와 같은 시각과 논조를 유지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이론자가 아니요 唯氣論者·유물론자는 더욱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후일 魯平奎 등의 연구를 기다려야만 했다.

1) 종합적 연구

‘철학사상’의 측면에서 이규보를 연구한 최초의 업적은 1991년 8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된 노평규의 「이규보 철학사상 연구」이다. 이 논문은 이규보의 철학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업적이자 아직까지 유일한 것이다. 더욱이 학위논문이라는 데서 ‘개척적인 논문’ 이상의 의의와 학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대개, 각론격의 연구가 집적되고 심화 과정을 거친 뒤 이를 기반으로 총론격의 종합적인 연구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이 경우 실로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행 연구가 전무한 만큼 연구자의 노고가 곱절로 요구되었음직하다.

연구 업적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아직까지 최초이자 유일한 업적을 검토하려 할 때 어려움이 없지 않다. 단순한 소개나 검토가 아닌 비평을 결들인 검토일 경우, 연구사적 검토라기보다는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독자 제현의 이해 있기를 바란다.

노평규의 논문은 이규보의 철학사상을 통해 고려시대 삼교 교섭사를 고찰한 것이자, 고려시대 삼교 교섭사 속에서 이규보의 철학사상이 지닌 의미와 위상을 살핀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유·불·도 교섭과 관련하여’라는 부제가 그 성격을 잘 드러냈다고 본다. 내용을 보면, 먼저 고려시대 삼교 교섭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삼교 교섭사에서 이규보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끌어냈다. 이어 이규보의 삼교관에 대해서 유교관·불교관·도교관의 순으로 자세하게 살피고, 마지막으로 민족 고유의 古神道 사상 및 삼교 융화에 대한 이규보의 입장과 견해를 논술했다. 이 논문에서 핵심은 한 마

디로 이규보 철학사상의 특징이 '삼교융화'에 있고, 삼교융화 사상의 基底에 민족 고유사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교사상은 '인간주체'의 문제를 통해 서로 회통 내지 귀일할 수 있으며, 또 삼교 사상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고신도'를 통해 민족주체성의 문제라든지 각 종교간·사상간의 화해의 정신까지도 자연스럽게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고운 최치원의 철학사상과 연결되며, 또 그 핵심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⁰⁾

이 논문에서는 전체 분량의 5분의 3 가량을 할애하여 삼교관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전반적으로는 그 대체가 究明되었다고 본다. 다만, 삼교 각각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어떠하였으며, 그로부터 어떠한 특성을 뽑아낼 수 있는지, 삼교는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서로 융화 내지 회통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맥락과 특성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논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다 보니 이규보가 삼교사상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그 면면들을 모아 나열하고 소개하는 데 머물렀다는 평이 나올 법도 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시 삼교관 각각에 대한 연구 업적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어렵게 집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 뒤에 나온, 이규보의 삼교관 각각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일정하게 보완적 구실을 하였으리라고 본다.

이 논문의 큰 특성은, 「동명왕편」을 중심으로 이규보의 사상을 재래의 고신도와 연결시킨 최초의 글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겠다. 집필자는 이규보의 삼교관에 대한 고찰에 이어 삼교조화론의 기반을 민족고유의 고신도 사상에서 캐냈다. 우리 나라 고유사상을 '고신도'라 하고, 이규보의 사상을 고신도와 연결시켜 정면으로 문제삼았다. 1992년 『동방철학사상연구』에 「이규보의 고신도사상과 삼교융화」(142~161쪽)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학

20) 최영성, 『최치원의 철학사상』, 아세아문화사, 2001 참조.

위논문 제VI장을 전제한 데다 약간을 덧붙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고신도 사상을 이규보와 결부시킨 배경과 이유를 살필 수 있다. 그는 이 글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柳承國 교수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우리 나라 고대로부터의 종교적 신비한 요소를 지닌 고신도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규보를 고신도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전혀 독창적인 것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 설에 기반하여 이규보의 삼교융화 사상의 핵심에는 고신도가 놓여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고자 하였다.²¹⁾

류승국 교수가 이규보의 사상을 고신도와 연결시킨 최초의 학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설이 여러 논거가 뒷받침된 논문이나 저술을 통해 제기된 것은 아니다.²²⁾ 직관적 통찰력에 의지한 측면이 많다고 본다. 설사 斯界의 원로인 류교수의 언급이 비중 있고 설득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려 한 것은 위험성이 내재한다. 자칫 건강부회로 흐를 염려가 적지 않고, 마침내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신도’란 용어는 현시점에서 일정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규보 자신이 우리의 고유사상을 일정한 용어로 표현한 적이 없고 보면,²³⁾ 註記 하나 없이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고신도’는 일본에서 고유신앙을 일컫는 말로 일찍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

21) 「이규보의 고신도사상과 삼교융화」, 144쪽.

22) 류승국은 그의 저서 『한국의 유교』(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80, 45·54쪽), 『동양 철학연구』(근역서재, 1983, 342쪽), 『한국사상과 현대』(동방학술연구원, 1988, 73쪽) 등에서, 특별한 설명이나 전제 없이 ‘고신도’란 용어를 사용하고, 고신도와 이규보의 사상을 결부시킨 바 있다.

23) 굳이 찾는다면 『동국이상국전집』 권2, 2b 「老巫篇 并序」 등에서 ‘太古之風’을 언급한 정도라 하겠다.

였다. 조선 말부터 일제 식민지 시기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종교단체, 그리고 崔南善과 같은 국학자들에 의해 '우리 나라 고유사상'을 일컫는 말로 사용됨으로써, 학계에 하나의 고유명사로 등장하였다. 최치원이 「鸞郎碑序」에서 우리 고유사상을 '風流'라 하였지만, 이것은 기실 우리 고어로 '神明'을 뜻하는 '부루'를 한자어로 표기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⁴⁾ 그 뒤 1949년 玄相允이 『조선사상사』를 저술하면서, 제1편 제1장에서 '신도사상'이라는 제목 아래 민족 고유사상을 다룸으로써, 학계에서 학술명사로까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940년대 말, 학술연구가 본 궤도에 진입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한국 최초로 저술된 '사상사'에서 '신도'란 말이 사용되었다면, 이 용어는 일정하게 보편성을 띠는 것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그 뒤 '신도' 내지 '고신도'란 용어는 점차로 사용하는 학자가 줄어들었다. 그 이유를 꼭 짚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일본의 고신도를 의식한 측면이 많지 않을까 한다. 어찌 되었든지 1980년대 이후로 학계에서는 '고신도'란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가 드물고,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학술명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학계의 공인'에 실패한 용어는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²⁵⁾

고신도 사상에 대해 이규보가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또한 고신도를 통한 유·불·도 삼교의 융화 문제를 다룬 대목은, 이규보의 철학사상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분량의 안배에 있어 펴 인색하다.²⁶⁾ 제시할 논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략한 것은 아닐까?²⁷⁾ 어찌되었

24) 『육당 최남선 전집』 제3권, 현암사, 1974, 253~255쪽 「조선상식」 참조. 여기서는 '신도'란 말의 의미, 出典, 用例, 風流道와의 관계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25) 필자 역시 지난날 발표한 논저에서 특별한 검토 없이 '고신도'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를 통해 釐正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26) 이후 노평규는 「이규보의 문학과 풍류사상」(『겨레문화연구소 제4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강화도의 사상적 맥락과 정신문화』, 인천카톨릭대학교, 1998)을 발표한 바 있다. 『누리와 말씀』 제5호, 인천카톨릭대학교, 1999에 재록.

든지 스스로 세운 가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집필자의 다짐과 相距가 있음이 아쉽다. 이 대목에 대한 보충 내지 보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2) 「동명왕편」과 삼교관에 대한 연구

종합적인 연구가 아닌, 각론적의 논문으로는 「동명왕편」을 주요 자료로 다룬 것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연대별로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한국문학사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민족서사시인 만큼, 주로 문학적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사학사적 측면에서 검토된 것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 「동명왕편」은 이민족의 압제에 시달리던 고려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햇불로서 하나의 시대적 산물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전통을 중시하는 이규보의 주체적 역사의식과 민족정신, 후세에 대한 鑑戒意識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규보가 내세운 민족주의의식은, 주로 權門에 아부하여 일신상의 영달을 누린 일부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포장한 방편의 하나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그가 주체적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뚜렷이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집권층에 영합하려는 것으로부터 탈피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규보의 철학사상은 통시기적으로 논해서는 안되고, 그의 전 생애를 사상 경향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정밀하게 분석해야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규보의 생애를 현실인식,

27) 물론 결정적인 논거라면 굳이 많고 적음을 따질 필요는 없다. 원래 말이란 설명을 할 때는 길게 늘어놓지만, 결론적인 것은 언제나 간단하고 명료한 법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栗谷 李珣가 말한 바와 같이, 선인들의 글에는 한 마디의 말이지만 體用이 該備된 경우도 있고, 반면에 여러 말을 했지만 단지 一端을 제시하는 데 그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논거의 多寡, 長篇細說의 여부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논단할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지만 결정적인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의식의 변화, 정치참여 등에 따라 30대, 40대, 치사 이후 3기로 구분해서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의 본질에 접근하려 시도했던 朴菴熙의 연구 성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²⁸⁾

「동명왕편」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와 함께, 삼교관에 대한 연구도 여러 편 선을 보였다. 1990년대 후반에 주로 발표되었는데, 삼교관 중에서도 불교관에 대한 연구가 타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다. 이규보의 불교사상은 대체로 고려시대 在家佛敎 또는 居士佛敎를 고찰하는 일환 내지 연장선에서 연구된 것이 다수이다.²⁹⁾ 이것은 그 스스로 '백운거사'라 自號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불교에 대한 이규보의 입장과 견해, 말년의 불교 신앙 등은 그의 삶의 발자취나 종교 역정과 관련하여 남다른 바가 있다. 이규보의 불교에 대한 이해 내지 불교 신앙은 그의 삼교관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계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996년에 나온 鄭濟奎의 「이규보의 불교 이해와 '首楞嚴經' 신앙」³⁰⁾은, 만년에 불교에 심취했던 이규보의 불교신앙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先鞭을 친다고 하겠다.³¹⁾ 이 논문의 초점은 '이규보 불교신앙의 특성은 어떤 것이었을까'하는 점에 있다. 집필자는 이를 논증하면서, 고려 지식인들의 불교신앙의 전통을 고려 중기 거사불교에서 찾았으며, 이어 구체적으로 『수능엄경』이 그 기반을 이룬다고 하였다. 거사불교에서는 『수능엄경』을 매우 중시하였고, 이것은 심성수양에 힘쓰는 경향과 연결되는데, 이규보의 불교신

28) 박창희, 「이규보의 본질에 대한 연구(1)-그의 30대에서의 관료지향성에 대하여」, 『外大史學』 제1집,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1987 ; 同, 「이규보의 본질에 대한 연구(2)-그의 40대 이후의 의식의 변용에 대하여」, 『외대사학』 제2집, 1989 ; 同, 「이규보의 본질에 대한 연구(3)-그의 만년에서의 감개」, 『외대사학』 제3집, 1990 참조.

29) 鄭濟奎, 「고려 후기 在家佛敎信仰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외 다수.

30) 『동양고전연구』 제7집, 동양고전학회, 1996, 181~213쪽.

31) 이와 비슷한 주제의 논문으로 李丙翼의 「이규보의 불교신앙 연구」(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도 있다.

양은 이러한 흐름과 경향을 충실히 계승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의 불교신앙이 『수능엄경』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수능엄경 신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집필자 자신이 정의한 것처럼 ‘고려사회의 재가불교신앙이 지닌 다양한 측면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규보 불교신앙이 갖는 사회적 의미까지 고찰했다는 점에서 역사학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 뒤를 이어 秦星圭의 「이규보의 불교관」³²⁾이 발표되었다. 한 마디로 이규보의 삶의 軌跡을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본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규보의 불교관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자세히 소개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고 개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는, 이규보의 생애 및 교유했던 승려와의 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살핀 뒤, ① 空觀, ② 禪觀, ③ 唯心論, ④ 능엄경 이해 ⑤ 법화경 이해의 순으로 그의 불교관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그의 학문적 본령은 유학자였지만 왕성한 지적 호기심 때문에, 만년에는 불교인으로 일생을 마감했다”고 하면서, “고려 후기 불교계에서 중시되었던 불교적 논리를 나름대로 구체화시켜, 사회적 문제점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지만, 불교 교리를 새롭게 정리하거나 체계화시키는 데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유자적 불교인’이 갖는 체질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이규보가 이해한 불교 교리나 불경과 관련된 불교 이해의 면모를 관련 자료를 통해 섭렵한 셈이 된다. 앞으로 좀더 분석적이고, 사상 체계와 정합성이 잘 드러난 논문을 기대한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논문으로, 근자에 朴胤珍의 「이규보의 불교관에 대한 일고찰」이 나왔다.³³⁾ 제목으로만 보면 특색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면 위의 두 논문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官人 내지 유학자 입

32) 『불교사연구』 제2집, 서울 중앙승가대학교, 1998, 63~87쪽.

33) 『史叢』 제53집, 고대사학회, 2000, 93~118쪽.

장에서 의 불교 이해'라고 결론을 이끌어 낸 점은 선행 연구와 다를 바 없으나, 이규보의 생애를 3기로 나누어 불교와 관련된 특징들을 살펴본 것이 다른 점이다. 이규보가 시기별로 불교에 심취한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로 유학 자적 면모를 보인 것은 당시 그 자신의 처지에 따라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집필자의 주장이다.³⁴⁾

한편, 이규보와 崔滄(1287~1340)의 사례를 통해, 무인집권기로부터 원나라 간섭기에 이르기까지 고려 지식인들의 불교 인식의 변화 추이를 고찰한 논문이 나오기도 하였다. 金仁昊의 「이규보와 최해의 불교인식과 비판론」³⁵⁾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불교를 인정하고 사회안정과 국가운영에서의 순기능적 요소를 살리려는 이규보의 입장과 유교를 정통으로 삼고 불교를 이단시했던 최해의 상반된 입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는데, 불교가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 즉 순기능과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의 추이를 탐색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규보의 불교관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상사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이규보의 유교관을 독립적으로 다룬 논문은 아직 없는 듯하다. 그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최영성의 「고려 중기 북송 성리학의 수용과 그 양상」³⁶⁾, 馬

34) 이러한 경향은 벼슬살이를 비롯한 정치적 기복이 심하고 사상적·종교적 편력이 다채로운 학자·사상가들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도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일생토록 儒者를 자처하면서도 老·佛이 의식의 언저리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않았던 학자·문인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들의 생애를 보면 대체로 정치적 기복이 심하고 불우한 처지에 있었던 나날이 많았다. 전통사회에서 유교는 성공한 자의 철학이요, 노·불은 현실 정치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시름을 달래주고 정신적 위안을 주는 철학사상이기도 했다. 현실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유교의 '經世的' 특성과 불교가 갖는 종교적 특성, 老莊의 현세 초월적 특성은 늘 긴장관계에 있었지만, 때로는 서로 견제와 균형, 조화와 보완을 추구하는 관계로 이해되기도 했다. 인간은 현실세계에서의 삶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한다. 그러기에 고단한 현재의 삶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종교적·초월적 경지에 의지하고자 노·불의 세계에 노닐곤 했던 것이다.

35)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河炫綱 교수 정년기념논총』, 2000, 221~236쪽.

宗樂의 「이규보의 유학사상」³⁷⁾을 들 수 있다. 최영성의 논문에서는 성리학이 고려에 전래 내지 수용된 시기가 종래의 통설과 다른 고려 중기라는 점을 다각도로 고증하면서, 북송대 성리학이 고려 유학자들에게 수용되었던 여러 사례를 들면서 이규보의 경우를 특기하였다. 돌이켜 보면, 근자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의 도입은 고려 충렬왕 16년(1290)에 晦軒 安珣(1243~1306)에 의해 최초로 전래되고, 이어 白頤正·朴忠佐(1287~1349)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용, 발전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었다. 이 설대로라면 성리학의 도입은 북송 성리학의 발흥으로부터 2세기 정도가 지난 뒤의 일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11세기 무렵부터 이미 북송의 신유학, 즉 성리학이 여·송간의 학문 교류를 통해 고려에 전래되었다고 하는 주장들이 몇몇 학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편적인 자료들이 제시되어 그 개연성을 높여 주기도 하였다. 다만, 그것을 明證하기에는 다소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무신 집정기에 鄭義라는 학자가 ‘賦’ 작품에서 성리학에서의 理氣論을 응용하였던 사실을 『동문선』을 통해 증명하였으며,³⁸⁾ 또 정의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이규보에게도 성리학의 중요한 편린들이 있음을 『동국이상국집』을 이끌어 고증하였다. 이는 종래의 단편적인 근거 제시의 한계성을 일정 부분 극복하고 뒷받침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종락의 논문은 ‘무신집권기의 유학의 일면모’라는 부제가 시사하듯이, ‘유학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무신집권기 유교계의 동향과 유학사상 이해의 양상을 주로 이규보의 경우를 통해 고찰한 논문이다. 그동안 연구가 상당히 집적되었던 ‘무인집권기 지식인, 문인들의 동향과 의식’이라는 주제를 세분

36) 『大東文化研究』 제3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123~150쪽.

37) 『한국중세사연구』 제5호, 한국중세사학회, 1998, 66~117쪽.

38) 『동문선』 권2, 「道閔一和槐橘合爲兄弟賦」 “…… 議夫氣之所鍾, 有同而異, 理之所管, 雖異必同, 宜彼二般之合, 歸于一化之融”

화시켜 그 중에서 한 갈래를 중점적으로 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규보의 유학자로서의 위치와 입장에 대해 논술하였다. 다만, 역사학적 입장에서 접근한 논문이기 때문에 철학사상 측면에서 고찰한 것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다고 본다.

이규보의 도교관, 道家思想에 관련된 논고로는 朴熙秉의 「이규보의 도가사상」³⁹⁾, 金澈雄의 「이규보의 도교관」⁴⁰⁾이 있다. 전자는 국문학에 끼친 老莊思想의 영향을 考究하면서 그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순수하게 철학사상적 측면에서 다룬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규보의 사상적 본령을 '도가사상'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집필자의 기본 시각이다. 후자는 '이규보의 도교 이해'를 주제로 ① 신선사상 ② 內丹論과 외단론 ③ 醮祭와 靑詞에 나타난 도교사상 순으로 그 이모저모를 밝혔는데, 도가사상과 도교를 구분 지은 것이 특색이다. 이규보의 도교적 성향이 당시 그와 교류했던 인물이라든지 보편화된 국가적 도교 행사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보았으며, 그에게 있어 도교는 전쟁과 질병, 災變 등의 극복을 기원하는 護國的·救世的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도교관에 대한 초유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으나, 이규보의 도교관이 지닌 독특한 의미나 성격을 분석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4. 미래적 전망과 課題

1) 선행 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규보 철학사상의 연구 현황을 보면 그 성과가 풍

39)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39~64쪽 ; 이에 앞서 『국문학과 도교』, 돌베개, 1998에도 실린 바 있음.

40) 『한국사상사학』 제13집, 한국사상사학회, 1999, 83~113쪽.

성하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발표된 논저의 수가 적어 초라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역사학 전공자들의 관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 대다수이다. 영역별로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철학 전공자들의 관심과 분발, 반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규보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연구 자료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집에 실린 글들이 난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이규보에 대한 일반적 통념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까지 이규보는 사상가나 철학자보다 문인·학자로 더 알려져 왔다. '고려 중기의 대문장가'-이것이 아직까지도 이규보를 규정하는 대체적인 시각인 듯하다. 그러나 기실 이규보는 상당히 심도 있고 독특한 철학사상을 전개하여 우리 나라 고대사상사의 한 페이지를 의미 있게 장식한 인물이다. 철학사상가로서의 이규보의 면모와 위상은 북한의 연구자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自省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이규보라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없이는 철학사상가로서의 이규보의 면모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문제점으로는 뭐니 해도 '문제의식의 결핍'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식이 투철하고 연구 목적이 뚜렷해야 함은 논문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 점에 있어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문제의식이 심화되지 않다 보니, 종래의 통설에 대한 검증적 차원의 논문이라든지,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 나열식, 소개 위주의 논문이 주조를 이룰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타성적으로 하나의 '연구틀'을 형성하였다고 본다. 이규보 철학사상이 현대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 즉 현대적으로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나름의 견해와 확신이 없다면 의미 있는 논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곧 이규보의 철학사상이 단순히 역

사상의 정신적 유산으로 논의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까지도 연면히 생동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밝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鄙著 『최치원의 철학사상』에서, 철학사상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 ① 사상적 특성 ② 역사적 기능 ③ 현대적 의의, 이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⁴¹⁾ 이에 비추어 볼 때 이규보 철학사상은 탐구할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의 심화와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요청되며, 이규보의 사유 체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과연 이규보 철학사상의 실체가 무엇이나, 그의 철학사상이 지닌 체계성과 정합성은 어떠한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총론적인 연구보다도 각론격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하고, 연구 주제를 세분화하여 이규보 철학사상의 실체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본다.⁴²⁾ 각론 차원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규보의 삼교관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삼교관 자체를 이규보 철학사상의

41) 최영성, 『최치원의 철학사상』, 9쪽.

42)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규보와 학문적·사상적 경향이 비슷한 최치원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치원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철학사상 연구의 중요 기반인 '삼교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그 밖의 주요 주제로 사회현실에 대한 참여의식과 개혁정신, 心學的 특성, 인도주의에 근거한 삼교회통 내지 삼교합일 사상, 동인의식과 민족주체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삼교관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컨대 몇몇 연구를 보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상당히 정밀한 분석까지도 내놓고 있어, 최치원 연구의 미래적 전망을 어둡지 않게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말미암아 최치원이 한국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역시 전에 비해 훨씬 확고해진 감이 적지 않다. 이제는 최치원에 대해 그저 '유·불·선 삼교에 회통했던 학자요, 우리 고유사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풍류도의 존재를 확인해 준 학자'라고 인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동인의식'이라 일컬어지는 민족주체의식과 뚜렷한 문명의식을 지녔던 사상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최영성, 『최치원의 철학사상』, 15~16쪽 참조.

본령이라 할 수는 없지만, 중요 기반을 이루고 있음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규보가 삼교사상 전반에 대해, 또 그 각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살피는 일은 그의 철학사상을 탐구함에 있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삼교사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풍류사상을 해석하는 데 토대가 되었던 최치원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삼교사상의 공통 기반이 무엇인가를 캐내는 문제는 결코 빠뜨릴 수 없다. 이것은 곧 삼교가 어떻게 極點에서 하나로 회통할 수 있는지 그 가능 근거를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최치원의 경우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최치원 철학사상에서 중핵 구실을 하는 것은 ‘道不遠人 人無異國’ 8자로 대표되는 ‘인간주체’의 문제이다. 이점은 이규보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삼교의 교섭과 민족의식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통기반이 ‘인간본질에 기초한 주체의식’임을, 이규보의 문집에 나오는 言說을 통해 논증하고 분석한다면, 이규보의 철학사상 뿐만 아니라, 한국사상의 기본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體用論의 입장에서 ‘체’가 있으면 ‘용’이 없을 수 없듯이, 철학 이론이 현실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규보 철학사상에서 ‘눈동자’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삼교의 조화 내지 융화의 문제, 그리고 고유사상과의 관계성 등을 탐구하되, 체계적인 맥락과 내면적 인과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또 이규보의 철학사상이 후세에 어떻게 전승되었고,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규보의 사상사적 위상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방향에 대한 전망

이규보의 철학사상은 그 개인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사상적 연원과 맥락’이라든지 ‘역사적

傳承'에 중점을 둔 연구, 특정 철학사상가와의 비교 연구 등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곧 이규보의 철학사상이 위로부터의 연원과 후대에 전승된 역사적 맥락이 뚜렷하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다시 말해서 이규보의 철학사상은 '삼교회통'과 민족 주체적 정신 등에 있어 한국 철학사상사에서 뚜렷한 사상적 연원과 맥락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먼저, 삼교 교섭사 측면에서의 연구이다. 필자는 한국철학사상사를 전공하면서 우리 나라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유·불·도 삼교 교섭사에 특별히 주목하여 왔다. 그리고 그 선구가 되는 인물로 고운 최치원을 선정, 중점적으로 탐구하여 그 결과를 학계에 陸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 철학사상사를 보면, '삼교회통'을 기치로 하여 삼교 교섭사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학자·사상가들이 적지 않다. 또 그들이 후세에 끼친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신라 때의 元曉·최치원으로부터 고려 때의 이규보·知訥을 거쳐 조선조의 金時習(梅月堂), 己和(涵虛堂), 休靜(淸虛堂), 有一(蓮潭), 李書九(薑山), 근세의 崔濟愚(水雲), 金恒(一夫), 姜一淳(甌山) 등에 이르기까지 一群의 학자·사상가·종교가들이 독특한 사상적 맥락을 연면히 이어 왔다.⁴³⁾ 이들에 대한 연구는 시대에 따라 불교나 유교에 편향된 우리 나라 사상사를 보다 다양하고 윤기 있게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多文化·이질화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각급 영역간의 대화를 통한 교섭과 융화,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고취를 제시하며, 특히 韓民族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인물 개개인에 대한 탐구와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연구를 학계에 주문한다. 이규보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상사

43) 최영성, 『최치원의 철학사상』, 497~523쪽 참조.

연구에서 미개척지나 다름없이 내려오고 있는 '삼교 교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들 사상가 상호간의 비교 연구는 내실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원동력 구실을 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교 연구에 있어서는 특히 최치원과 이규보의 비교가 선행되면 좋을 듯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치원과 이규보는 한국철학사상사에서 신라와 고려를 각각 대표하는 우뚝한 사상가요 지성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서로 다른 시대를 살다 갔지만, 그들의 사상체계나 정신세계를 보면 氣脈相通하는 바가 많고 어느 면에서는 흡사하기까지 하다. '고운'과 '백운'이라는 호는 그들의 사상적 연관성을 넉넉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그들의 '사상적 고향'이 다르지 않다는 주장까지도 없지 않았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 사상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최치원·이규보의 삼교관과 인간주체의식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응용되고 구현되었는지를 비교 고찰하는 문제는 중요한 테마라 할 수 있다. 최치원의 東人意識과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보이는 민족의식을 여러 각도로 비교 분석하면서, 이규보의 '崔致遠觀'은 어떠하며, 또 최치원의 삼교관과 풍류사상이 이규보가 말하는 민족 고유사상에 어떠한 양상으로 연결되는지, 또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최치원과 이규보 사상의 비교 연구는 그저 특정 사상가 개인에 대한 비교 연구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사상사·문화사 등 연구 전반에 연결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들이 우리나라 삼교 교섭사에 있어 주된 인물이자, 또 앞선 시기의 인물이고 보면, 이들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우리 나라 삼교 교섭사의 始端을 여는 것이요, 또 그 전개 양상을 살피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철학사

상은 '삼교교섭'과 '민족의식'의 두 측면에서 최대 공약수를 추출할 수 있다. 이는 곧 '각 종교간의 대화'와 '뿌리 있는 국제화(세계화)'를 중요한 話頭로 하는 오늘날의 당면 과제와 다름이 없고, 더욱이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인간 본질에 기초한 주체의식'의 문제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時宜性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역시 풍부하다고 생각된다.

비교 연구에서는 엄정한 기준 아래 비교 항목을 설정하고, 과연 그들 철학사상의 특성과 지향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그 '異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용어와 개념에 있어서도 종래 학자들이 사용했던 '삼교회통'과 같은, 막연한 것들은 지양할 수 있다면 錦上添花라 할 것이다.

5. 맺음말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규보 연구는 문학·역사학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浩汗한 그의 문집이 온전히 전하고, 게다가 국역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철학사상 측면에서의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진척이 더디다. 연구 수준 또한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곧 이규보의 위상이 아직까지 '문장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고, 이와 함께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 심화되지 못한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규보라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없이는 철학사상가로서의 이규보의 면모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영역별로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철학 전공자들의 관심과 분발, 반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십상

이지만, 사실 어떠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규보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의 場을 마련한 것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그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규보 연구에 있어 가장 취약한 '철학사상' 부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요청되며, 학제간의 연구도 활발하게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규보 철학사상은 삼교관과 민족주체의식,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인간주체'의 문제,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그 본령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 '삼교회통'을 기치로 하여 삼교 교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학자·사상가들과의 비교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삼교 교섭사에 대한 연구가 日淺한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서로 사상적 공통점이 많고 또 傳承 관계가 뚜렷한 사상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그들 철학사상의 同異와 특성 등을 비교 연구하고, 나아가 후세에 사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하여, 삼교 교섭사의 기반을 닦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다.

특히 최치원과 이규보에 대한 비교 연구는 일차적으로 그들 개인의 철학사상 연구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고, 나아가 이들 사이의 학문적·사상적 연결 고리를 밝힘으로써 한국사상사의 맥락을 역동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최치원이 한국 고유사상에 대해 史上初有의 관심을 가지고 최초의 정의를 내렸던 인물인 만큼, 우리의 고유 사상이 최치원을 거쳐 어떠한 양상으로 후대에 전승되었는지도 아울러 고찰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삼교 교섭사'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 단초를 여는 작업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東國李相國集』

『孤雲文集』

『東文選』

崔南善, 『육당 최남선 전집』 제3권, 현암사, 1974.

崔英成, 『최치원의 철학사상』, 아세아문화사, 2001.

震檀學會, 『東國李相國集』, 일조각, 2003.

金仁昊, 「이규보와 崔瀼의 불교인식과 비판론」,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河炫綱 교수 정년기념논총』, 2000

_____, 「이규보의 현실인식과 정치·경제 개선론」, 『學林』 제15집, 연세대학교, 1993.

金澈雄, 「이규보의 도교관」, 『한국사상사학』 제13집, 한국사상사학회, 1999.

金皓東, 「고려 무신정권시대 문인지식인 이규보의 농촌현실관」, 『국사관논총』 제4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2

魯平奎, 「이규보 철학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_____, 「이규보의 古神道思想과 三教融和」, 『東方哲學思想研究』(道原 柳承國 博士 高희기념 논문집), 1992.

_____, 「이규보의 문학과 풍류사상」, 『누리와 말씀』 제5호, 인천카톨릭대학교, 1999.

馬宗樂, 「이규보의 유학사상」, 『한국중세사연구』 제5호, 한국중세사학회, 1998.

朴胤珍, 「이규보의 불교관에 대한 일고찰」, 『史叢』 제53집, 고대사학회, 2000.

朴宗基, 「儒敎史家 이규보의 역사학」, 『韓國史學史研究-于松趙東杰停年紀念』, 도서출판 나남, 1997.

朴菴熙, 「이규보의 본질에 대한 연구(1)- 그의 30대에서의 관료지향성에 대하여」, 『外大史學』 제1집,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1987

_____, 「이규보의 본질에 대한 연구(2)- 그의 40대 이후의 의식의 변용에 대하여」, 『외대사학』 제2집, 1989.

_____, 「이규보의 본질에 대한 연구(3)- 그의 만년에서의 감개」, 『외대사학』 제3

- 집, 1990.
- _____, 「李奎報 研究」, 일본 一僑大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6.
- 朴熙秉, 「이규보의 도가사상」, 『국문학과 도교』, 돌베개, 1998.
- 鄭濟奎, 「이규보의 불교 이해와 ‘首楞嚴經’ 신앙」, 『동양고전연구』 제7집, 동양고전학회, 1996.
- 秦星圭, 「이규보의 불교관」, 『불교사연구』 제2집, 서울 중앙승가대학교, 1998.
- 崔利子, 「이규보 사상에 대한 일고찰」, 전주대학교 교육학부 『논문집』 창간호, 1983.
- 崔英成, 「고려 중기 북송성리학의 수용과 그 양상」, 『大東文化研究』 제3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 黃秉晟, 「이규보의 君臣·君子觀의 성격」, 『전남사학』 제19집, 전남사학회, 2002.
- _____, 「江都 시기 이규보의 현실인식」, 『전주사학』 제8집, 전주대학교, 2001.

Abstract

Some Problems and Idea for the Study
on Philosophical Thought of Lee, Kyu-Bo

Choi, Young-Sung

The studies on Lee, Kyu-Bo started since 1960's have accumulated plenty of achievement in view of literal or historical aspect. It greatly had effect on the studies that 53 volumes of his works completely remained and further the volumes of his works also translated in Korean version. Incidentally, the progress of a study on Lee's works in view of philosophical aspect is slow as: To speak 'It begins now' is not too much. It is difficult for my thoughts that the level of philosophical research also is evaluated highly. It should be not merely manifested that a remarkable problem revealed in the examination of preceding studies was a lack of critical mind. The position of Lee, Kyu-Bo is still staying as a stylist proves this fact. Professionals whose mayor in philosophy should be required to get interest, exertion and introspection. It is considered that Lee's philosophical thought can be accessible to the original nature when the studies on his works are executed by these three axes centered as appreciation of three religions a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 sense of ethnic sovereignty, and a matter of human subject that passes through appreciation of three religions and a sense of ethnic sovereignty. Along with this matter, it should be executed by comparative study between well-known scholars and thinkers who remained great foot-prints on communicative history of three religions in Korea, and furthermore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philosophical thought should have been constituted in dynamic and in organic and dynamic through examining coupling devices between three religions in view of academic and philosophical aspects

Key Word

Critical mind, View of the Three Religion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Sense of ethnic sovereignty, Matter of human subject, Comparative study